

대한상의 브리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제80호 2018년 10월 1일



가전기기는 우리 기업이 강점을 지닌 분야이면서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과 신기술 출현으로 고민이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9월에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 2018을 통해 세계 가전의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전은 레드오션? 인공지능(AI)에서 새로운 기회 찾는다

-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8에서 확인한 가전 트렌드 -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다. 연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와 함께 세계 가전제품의 동향을 볼 수 있는 자리다.

미국보다 규모 면에서는 작지만 프리미엄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들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전 세계 가전업체 수장들이 참석한다.

역사적으로도 1930년에는 최초의 TV 수신기가 전시됐고, 1967년에는 최초의 컬러TV, 1991년 최초의 MP3플레이어, 2006년에는 인터넷(IP)TV가 공개된 바 있다.

AI로 블루오션 된 가전시장

가전업계는 ‘레드오션’(경쟁이 치열한 제 살 깎아먹기 시장. 블루오션의 반대)으로 알려져 있다.

스마트폰과 달리 냉장고, TV, 세탁기 등은 소비자들이 매년 교체하지 않아 수요는 잘 늘지 않고, 중국업체들이 낮은 가격을 무기로 시장에 진입하다보니 업체들의 영업이익도 줄었다.

이런 가전시장이 ‘블루오션’(경쟁자가 적고 잠재력을 지닌 유망한 시장)으로 거듭날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바로 인공지능(AI)으로 연결된 스마트홈 덕분이다.



[IFA 2018]

- 개최기간 : 2018. 8. 31. ~ 9. 5. (6일간)
- 개최장소 : 독일 베를린
- 개최연혁 : 1924년 최초 개최 (올해 58회)
※ 1924~1939년 매년 개최. 제2차대전으로 중단.
1950~2005년 격년 개최. 2006년부터 매년 개최
- 참여기업 : 1,800여 개
- 방문객수 : 25만 5천여 명



[IFA 전시장]



※ 출처 : IFA 사무국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스마트홈은 가정 내 모든 가전기기에 AI가 탑재되면서 하나로 연결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사용자가 일어나면 알아서 전등이 켜지고 커피포트가 커피를 내려주고, TV가 오늘 날씨나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가전업체가 스마트홈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빅데이터' 때문이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 정보를 냉장고, TV, 세탁기 등을 통해 수집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다시 활용해 보다 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벌일 수 있다.

글로벌 기업 간 AI 플랫폼 전쟁

올해 IFA에서도 가전업체들의 스마트홈 플랫폼 경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가전업체들이 스마트홈 제품들을 소개했지만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는 구글과 삼성전자였다. 구글은 검색 기반의 AI 플랫폼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가전시장까지 장악하려는 반면 삼성전자는 자체 AI

플랫폼 '빅스비'와 자체 가전기기들의 조화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은 2016년 AI 스피커를 출시하면서 시장을 확대했다. 다양한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하고 AI 스피커인 구글 홈을 통해 작동시킨다. 전 세계 225개 파트너 사 기기와 호환돼 5,000개 이상의 제품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구글은 스타트업이 몰려있는 IFA 넥스트관에 전시장을 꾸렸다. 구글은 "우리는 하드웨어 칩, 프로그램,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한다"며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가전제품을 스타트업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자체 AI 플랫폼인 빅스비로 구글에 도전장을 냈다. 전시관의 삼성전자의 홈 IoT 존에서는 TV, 에어컨 등 가전이 사용자 특성에 맞게 작동되는 모습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반도체부터 스마트폰, 가전기기, 빅스비 등 '부품-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통합 개발할 수 있고 주요 가전기기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로 매년 5억대씩 팔린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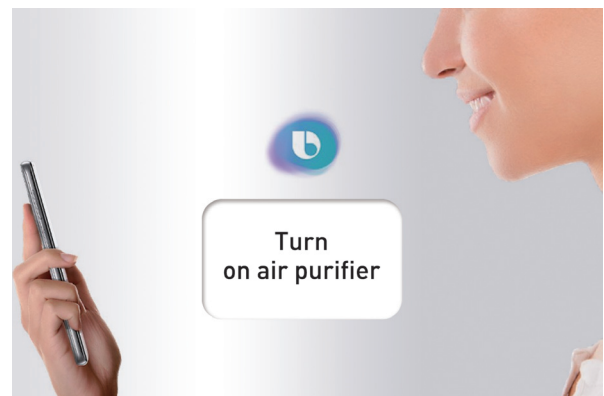
[구글 홈]



※ 참고자료 : 구글



[삼성 빅스비]



※ 참고자료 : 삼성전자

스마트홈, 중소 가전업체도 기회

구글과 삼성전자의 AI 플랫폼 경쟁은 누가 더 많은 가전기기를 확보하는지에 달렸기 때문에 이들은 더 많은 가전업체들과 협력하길 원하고 있다. 10년 전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에서 구글 안드로이드가 수많은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플랫폼을 개방하는 전략으로 OS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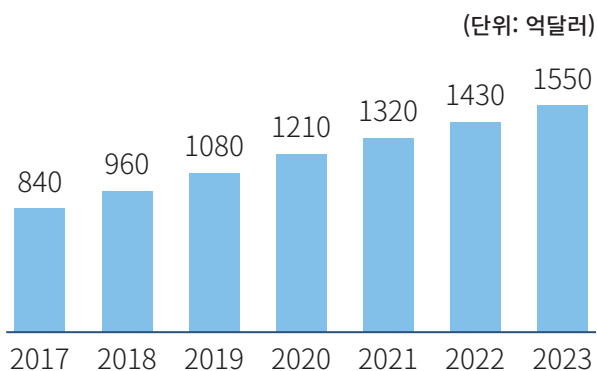
이에 따라 다양한 중소형 가전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글 홈이 지난 18일 국내 전격 출시하면서 당장 국내 가전업체들에도 구글 어시스턴트 연동 스마트 가전기기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IFA 구글 전시장에서도 구글과 협업하길 원하는 수많은 가전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실제 IFA 전시장 곳곳에서는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도어록, 스마트 전등 등 자사의 제품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스마트 가전기기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국내 중소 가전업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샘은 구글 홈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모션베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 전망]



※ 출처 : Strategy Analytics

음성만으로 원하는 자세로 바꿀 수 있으며 구글 홈을 통해 다양한 기기와 스마트모션베드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

코웨이도 구글 홈과 연동해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한 공기청정기를 내놓았다. 단순 조정뿐 아니라 필터 교체 주기, 상태도 자동으로 알려준다. 경동나비엔은 구글 홈을 통해 난방이나 온도조절 등을 모두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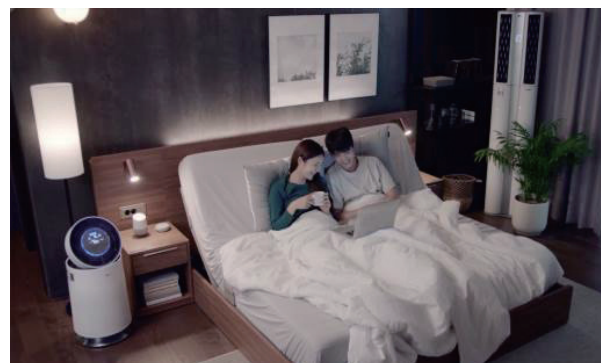
창조적 아이디어와 연동성 고려 중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AI 플랫폼을 탑재해 새로운 가전기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기존 제품은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집중했다면, 이제 다른 가전과의 연동성도 생각해야 한다.

결국 AI 스마트홈 시대에 어떤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지, 다른 기기와 어떤 방식으로 연동돼 소비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예상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스마트홈 활용한 가전 예시]



※ 출처 : 한샘 스마트모션베드

국내·외 경제지표

2018년 10월 1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6	2017 ^(E)	IMF		OECD	
			2018 ^(P)	2019 ^(P)	2018 ^(P)	2019 ^(P)
한국	2.8	3.1	3.0	2.9	2.7	2.8
세계	3.2	3.7	3.9	3.9	3.7	3.7
미국	1.5	2.3	2.9	2.7	2.9	2.7
중국	6.7	6.9	6.6	6.4	6.7	6.4
일본	1.0	1.7	1.0	0.9	1.2	1.2
EU	2.0	2.4	2.2	1.9	2.0	1.9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6	2017	'18.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원/달러	1,161	1,131	1,072	1,068	1,076	1,093	1,123	1,121
원/엔(100엔)	1,068	1,009	1,011	994	981	993	1,008	1,010
원/위안	174.4	167.5	169.6	169.8	169.2	169.1	167.1	163.7
원/유로	1,283	1,276	1,323	1,312	1,272	1,275	1,312	1,296
유가(Dubai)	53.8	53.2	62.7	68.3	74.4	73.6	73.1	72.5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18.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산업생산	3.0	2.3	-0.6	1.9	1.7	0.2	1.2	-
소매판매	3.9	1.9	7.0	5.4	4.5	4.1	6.0	-
설비투자	-1.3	14.1	0.1	1.6	-3.5	-14.7	-10.4	-
수출	-5.9	15.8	5.5	-1.9	12.9	-0.3	6.2	8.7
수입	-6.9	17.8	5.4	14.8	12.8	10.9	16.4	9.4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